

시진핑,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지지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환영

“북핵 제재 안보리 결의, 9·19성명 이행” 촉구

◀ 1면에서 계속

북핵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해 모든 북핵의 파기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복귀를 내용으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핵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공동성명은

명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시 주석에게 설명했으며 “중국 측은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를 위해 한국측이 기울어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역사 등의 문제로 역내국가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데 우려를 표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의 구축이라는 공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며 “이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맥락에서 중국 측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양자 및 지역차원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차원으로까지 더욱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양국 지도자간 긴밀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환교환, 전화통화, 특사과견 및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 구축 등 정치·안보분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특히 정보상태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인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하고 인문유대 강화활동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가슴 아픈 일”

박준영 지사 쓴소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파문과 관련해 ‘3선 도지사’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썩지만 의미있는 쓴소리를 던졌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7일 전남도청에 열린 민선5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군부 독재와 장기 독재 속에서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민주국가로 발돋움했다”며 “민주국가로 가장 큰 장점은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그것은 법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민주적 가치가 보장된 사회이고 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명예도 말하고 있지만 민주국가는 절차와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국정이 가치와 틀에 따라 진행될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화록 내용에 대해 여러 언론매체를 살펴봤다”면서 “논란이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 북한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본 산증인 중 한명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당정당 정부조직화 촉구”

광주 5개 기초의회 의장협

광주 5개구 기초의회 의장협의회는 28일 동림 다목적체육관에서 ‘지역 균형발전 촉구 및 5개구 기초의회 친선교류대회’를 개최한다.

5개구 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최근 정치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대응해 전국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아시아 문화전당의 정부조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은 정치권의 수도권 정비계획법령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중단과 지방 경쟁력 강화 및 전국균형발전정책 추진, 호남 차별 가속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5년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정부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입법에 고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운영주체를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경영의 효율성만을 우선시해 공공성 훼손, 정부의 책임의지 약화, 예산확보 어려움에 따른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소기업에서 꿈 펼쳐라”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3광주·전남 강소기업-청년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포스코(주), K-WATER 등의 채용설명회 부스와 현장채용 면접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F1대회 운영비 204억 국고지원을”

전남도, 새누리당과 간담회... 호남고속철 조기 건설 요청도

전남도는 28일 새누리당 전남도당과 간담회를 갖고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F1대회 지원 등 지역현안 사업 23건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한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전남도당에서 갖는 간담회를 통해 박

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동북아 해양 관광특구 조성을 비롯해 F1대회 등 지역 현안사업들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건의할 내용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동북아 해양 관광특구 조성,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지원 ▲호남고속

철도(광주~목포) 조속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등 7건이다.

또 ▲남해안철도(보성~임성) 고속화 ▲농축산 미생물 산업화센터 건립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지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서남권

중입자치료센터 설립 등 16건의 주요 현안사업도 포함됐다.

권오봉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향후 급증할 환경해권 교역 수요를 감안해 호남고속철도를 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F1대회 운영 시스템도 민간에서 조직위원회로 개편된 만큼 2014년에 F1대회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운영비 204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내년 재선 도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장 교육감은 27일 광주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직선 초대 교육감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010년 시 민후보로 추대돼 교육감에 당선됐지만 내년 선거에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파전 양상인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직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를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시민사회단체와 개혁적 인사들의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장 교육감은 취임 3년 동안의 최대 성과로 중학교 3학년까지 실시한 친

환경 무상 급식과 무상 교육비 지원 확대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꼽았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빛고를 혁신학교 운영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광주교육계의 목은 때를 성급하게 벗겨보려다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장 교육감은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학교문화혁신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학교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류길재 통일부장관

오늘 조선대서 강연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28일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과 (사)북한연구학회와 함께 개최하는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조선대 경성대 세미나실에서 ‘정전 체제를 넘어, 평화와 신뢰의 한반도 구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류 장관은 30여분간 기조강연을 한 뒤, 일부 세

선에 참석해 토론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기조강연에 이어 ▲정전체제 60년의 회고와 전망 ▲평화체제구축 논의의 쟁점 ▲대북정책의 진화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정책 추진전략 ▲서울프로세스의 의미와 추진전략 ▲김정은 체제의 정치전략 ▲ANT이론과 개성공단 등 6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최희준기자 chae@

2013년 10월 1일 OPEN

3.3m²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평×200만원 = 임대료 3억740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파격적인 임대료!

지하2층 ~ 지하1층	수영장(사우나, 헬스) 2294평×80만원 = 5억1335만원	지상2층	PC방 203평×200만원 = 4억60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평×90만원 = 3억6720만원	지상2층	레스토랑 166평×200만원 3억320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 하나로마트 845평×500만원 = 42억250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평×150만원 12억8100만원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평×500만원 = 1억1천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평×500만원 = 1억1500만원	지상2층 ~ 3층	골프장 906평×150만원 13억5900만원
지상1층	약국 69평×1000만원 = 6억9천만원	지상2층	일식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평×500만원 = 2억2천만원	지상3층 ~ 4층	영화관 (입점확정)
지상1층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540평×300만원 = 16억2천만원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